

(총 248)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550

T. Hartweg (1794-1872) WESLEY: 11.10.11.10. L. Maurer (1792-1872)

보통으로

1. 시 시 온 의 영 광 이 빛 나 는 아 침  
 2. 시 시 온 의 영 광 이 빛 나 는 아 침  
 3. 보 아 라 아 바 다 아 야 아 초 는 가 피 고  
 4. 땅 들 아 바 다 아 야 아 초 는 가 피 고

어 매 말 찬 들 었 던 이 중 시 주 땅 들 나 밤 들 울 드 아 오 오 네 네 네 라

슬 오 이 짜 플 래 산 과 애 선 저 죄 롱 지 사 이 기 품 마 가 뽀 꾸 주 득 이 던 처 한 되 니 울 러 에

시 만 주 찬 온 의 영 광 이 비 처 오 네 네 네 찬 주 수 은 하 늘 에 비 누 찬 사 무 치 네 네 네 아 멘

원조 기타코드(Capo=1st): A<sup>b</sup> → G D<sup>b</sup> → C E<sup>b</sup> → D B<sup>7</sup> → A<sup>7</sup> F<sup>m</sup> → Em

내가 매일 기쁘게

찬 427 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팎이요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 함이 없었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함이  
 나와 동행 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은 박았네

내가 주의 은사를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그 발 아래 이르러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내가 기쁜 맘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어든 밤이 지나고 마귀의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 이 계시니 할렐 루야 함께 하시 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은혜

손경민

A E/G<sup>#</sup> F<sup>#</sup>m7 E/G<sup>#</sup> A E/G<sup>#</sup> F<sup>#</sup>m7

1.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2.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 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A/C<sup>#</sup> D A/C<sup>#</sup> Bm7 E A D/E A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 소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D/E A E/G<sup>#</sup> F<sup>#</sup>m7 E/G<sup>#</sup> A E/G<sup>#</sup> F<sup>#</sup>m7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A/C<sup>#</sup> D A/C<sup>#</sup> Bm7 E A D/E A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 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D/E A E/G<sup>#</sup> F<sup>#</sup>m7 C<sup>#</sup>m/E D A/C<sup>#</sup> Bm7 E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 없는 은혜 내 삶에

A E/G<sup>#</sup> F<sup>#</sup>m7 A/E D E A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 소

(통일 186)

내 주의 보혈은

254

회개와 용서 I hear Thy welcome voice  
 L. Hartough, 1872 예수회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WELCOME VOICE: 6.6.8.6 REF. L. Hartough, 1872  
 보통으로 (A: 1: 7)

1. 내 주 의 보 혈 은 정 하 고 정 하 다  
 2. 내 약 주 하 고 추 해 도 온 주 계 로 나 가 면  
 3. 날 큰 오 죄 하 심 은 아 새 전 길 을 거 나 믿 으 니  
 4. 그 가 밤 속 에 큰 증 거 를 주 소 서  
 5. 그 가 밤 속 에 큰 증 거 를 주 소 서

내 힘 또한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곧 오섯 아 주 시 다  
 내 힘 또한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곧 오섯 아 주 시 다  
 내 힘 또한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곧 오섯 아 주 시 다

후렴

내가 주께로 지금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 멘